동부하이텍, 자동차 반도체 시장 진출

미국 Micrel에 7월부터 OEM 공급 ... 내열성 및 장기 내구성 뛰어나

동부하이텍이 자동차 반도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동부하이텍은 미국의 아날로그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Micrel에 자동차용 반도체 이더넷 칩을 7월부터 위탁생산 방식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7월21일 발표했다.

자동차의 유선·무선 정보망을 연결해 주는 이더넷 칩은 자동차 내 모바일 오피스 구현, 실시간 교통정보 송수신, 자동차 상태의 원격 진단 등 미래형 양방향 통신에 필수적인 반도체이다.

자동차용 반도체는 영하 40도에서 영상 150도까지 극한의 온도에서 정상 작동해야 하며 외부 진동이나 충격에도 15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장기 내구성이 요구되고 있다.

동부하이텍은 2004년 미국 자동차 품질인증이 포함된 ISO/TS 16949 인증을 획득한 이후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다.

동부하이텍 관계자는 “자동차용 반도체는 휴대폰이나 LCD(Liquid Crystal Display) 등 일반 가전제품에 사용하는 반도체보다 엄격한 품질기준과 심사가 필요하다”며 “이더넷 칩 생산은 동부하이텍의 품질과 생산 시스템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조사기관인 데이터빈스는 자동차의 전장화에 따라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가 꾸준히 신장해 2012년에는 시장규모가 29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7/21>